전주정신 통해 시민 자긍심 높인다

전주시민의 날 ·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행사 18일 열어 축하행사 · 전주정신 선언문 낭독, 전주시민의 장 · 모범시민상 시상 등 진행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축제의 장이 자 전주정신을 재확인하는 '제60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들 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단옷날인 오는 18일 한국전통 문화전당에서 66만 전주시민의 자긍 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전주시민의 날과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위 해 정립한 전주인의 정신문화인 전 주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한국의 꽃 심 전주"선포 2주변 행사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념식을 후백제의 왕도 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한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중인 전주의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도· 시의원 등 주요내빈과 관내 기관· 단체장, 전주정신 다울마당 위원, 전 주정신 강사와 일반시민 등 각계각 층에서 참여해 다 함께 전주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전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의 주요프로그램은 전주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입상자 및 전주정신 강사 등으로 구 성된 시민대표 6명의 전주정신 선언 문 낭독,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전주시민의 장 (5명) 및 모범시민상(5명) 수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예의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효열장에 임은애씨(51,여), 교육장에 강석콘씨(59,남),문 화장에 조충익씨(68,남) 공익장에 정병준씨(81,남),체육장에 강종구씨(62,남)이며,모범시민상 수상자는이용운씨(호성동)외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주시 기회조정 국장은 "우리 민족 4대 명절의 하나 인 단오절에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 정신 선포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 는 만큼, 가장 전주다운 모습으로 대 한민국을 넘어 당당히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께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송효철 기자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 스카이 조감도

전주역사 신축이 불러올 '나비효과'

정부 · 코레일 · 전주시 공동투자··· 2021년까지 신축 동일시기 완공될 '클래시아 더 스카이' 와 상호 호재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사가 지난 4월 20일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함께 440억을 공동 투자하여 2021년까지 새로 신축한다.

인접 지역인 익산, 정읍 등은 이 미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완공하고 이용 중 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 도 없지 않다.

최근 전주시에 따르면 "총투자금 440억 중에서 국토교통부는 총 290억원을 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에서는 100억원을 들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전주시는 5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신축에 따른 도로 망 구축 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의 4 분의 1에 가까운 100억원을 투입 한다.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새

롭게 지어질 전주역시는 '사람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을 넘어 '사 람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2021년 이후를 상상하면, 전주역사가 지역 상 권에 일으킬 영향은 상당하다. 당 장 지역상권 활성회에 고심 중인 '첫마중길 상인들'에게도 좋은 영 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전주역사의 신축과 시기를 같이하여 주변지역에 건설중인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 스카이 가 완공되면, 지역의 랜드마크이 자 싱권 활성화에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 스카이'는 최고층 3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함께 입주하기 때문에 전주역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 · 콘텐츠 청년창업 지원

15일까지 '스마트창업아카데미' 4기 교육생 모집 청년 성공창업 위한 체험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 트창작타는 오는 15일까지 '스마트창 업아카데이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창업아카데미' 는 전주시가 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 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이번 4기 과정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한 청년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창업가정신 함양,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필수 창업스킬과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교육이 약 15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들의 4 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ΔIoT 적용 사례와 체험 실습 ΔVR 미래트렌드 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의 강의를 제 공, 수료생에게는 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스마 트창작타사업 지원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한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1월 스마트창업아카데미 3기 과정에서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4개 팀에게 2018년 스마트창작터 운영사업 참여를 통해 최소요건제품제작과 고객반응검증 등 최대 500만원의시장검증지원비를 지원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은 "청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 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및 특화 된 창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스 마트창업아카데미 교육이 성공창업 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많 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 지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온라인 (hyemi@jica.or.kr)으로 신청하거나 진흥원(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창작타(중 063-281-411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 해결사 역할 동네복지와 9개 권역으로 구성 '희망보드미' 운영

전주시, 동네 복지 정착 위해 나섰다

전주시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 주형 동네복지의 정착을 위해 9개 권 역 민·관 협력 통합시례회의인 '희 망보드미'활성화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희망보드미'는 지난 2013년 6월 출범한 전주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로 동 주 민센터 등 공공기관 등에서 해결하 기 힘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 공 · 민간의 급여 · 서비스 ·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 · 제공하기 위한 사 례회의 전문가 집단이다. 현재, 전주 시 전체 33개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누 어 129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 며, 이들은 주요 사회복지기관과 시 설, 병원 등을 연계해 매월 1회 발굴 된 소외계층에 대한 사례회의를 실 시하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보드미 위원은 권역별 지역에 속한 복지관과 노인, 아동을 포함한 복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공무원, 구청 통합사례 관리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법 률홈닥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 73회의 통합사 례회의를 통해 50여건의 복합적인 사 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를 진행했다.

강종대 희망보드미 위원장(예수병원 사회사업과)은 "전주시가 동네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보드미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요한 복지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근 2개권역을 재구성했으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지는 "전주 시가 전주형 동네복지를 정착시키고, 한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도 시를 만들기 위하여 '희망보드미'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며 "전국 유일 의 민관연계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 록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전주정신 표준교육안 제작 배부

전주시가 전주사람의 자존감과 자존 심을 높이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이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 록 전주정신 표준교육안을 제작해 배 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 주정신 다울마당 위원들의 집필과 자 문을 통해 전주정신 교육 시 교과서가 될 표준교육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교육인은 총 80페 이지 분량으로, 전주정신 정립의 필요 성부터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꽃심, 꽃 심 속 4가지 정신(대통, 풍류, 올곧음, 창신)의 의미와 역사 등에 대해 다루 고 있어 전주시민과 타 지역 거주자 모두가 전주정신에 대해 보다 쉽게 알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교육안을 전주지역 초·중 학교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배포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육안 을 활용해 찾아가는 전주이야기 나누 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표준교육안을 통해 시민들이 전주정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하반기에 진행될 전주이야기 나누기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정읍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이 초등학생 성추행

6·13지방선거 전북 정읍지역 한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 동 중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 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정읍지역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의 70대 선거운동원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 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B군의 특 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징에 서 A씨를 검거했다.

/뉴시:

등용문컴퓨터학원, 위기청소년에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전주시청소년상담복자센터와 등용 문컴퓨터회계학원이 위기청소년 자 격증 취득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등용 문컴퓨터회계학원(부원장 김은화)과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고 이날 한 위 기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반에 다닐 수 있는 학원비 100여 만원의 장학증 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 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부지 원단인 발견·구조지원단, 복지지원 단, 상담·멘토지원단 총 96개 기관, 2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효철 기자

